

벙커C유, 고도화 경쟁으로 “품귀”

배럴당 100달러대로 상승 ... 현대·GS 고도화설비 추가증설까지

정유기업들이 너도나도 고도화 설비 증설 경쟁에 나서면서 벙커C유가 품귀현상을 빚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최근 GS칼텍스와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이 경쟁적으로 고도화 시설 증설에 나서면서 시장에 풀리는 벙커C유의 물량이 줄어들자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고도화 시설은 통상 원유보다도 싼 벙커C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 등의 경질유로 바꿔주는 설비로, 최근 국내 정유기업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인 벙커C유를 경질유로 바꿔주는 고도화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정유기업들이 한꺼번에 고도화 경쟁에 나서고 있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벙커C유가 품귀현상과 함께 가격이 급등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때 배럴당 34.04달러까지 떨어졌던 벙커C유 가격은 4월 배럴당 103.27달러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 8월 이후 32개월만에 10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외 정유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벙커C유를 집어넣어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내는 고도화 시설을 급속히 늘리고 있는 데다 원전 사고의 여파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이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연료인 벙커C유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질유 품귀현상은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등의 추가 고도화 시설이 완공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선박연료로 벙커C유를 주로 사용하는 해운기업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2010년 톤당 평균 465달러였던 선박용 벙커C유 가격이 2011 1/4분기에는 평균 600달러로 30% 가량 급등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2011년 들어 급등한 벙커C유 가격으로 인해 해운선사 전체 매출액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안팎에서 23-28%까지 올랐다”며 “수급지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5/26>